

투석환자와 일반인에서 악성종양 발생을 비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 사회의학교실², 신장연구소

김진경¹ · 이영기¹ · 오숙의¹ · 김은정¹ · 김수진¹ · 오지은¹ · 김형직¹ · 노정우¹ · 김동현²

Incidence of Malignancy in Dialysis Patients and General Population

Jin Kyung Kim¹, Young Ki Lee¹, Sook Eui Oh¹, Eun Jung Kim¹, Soo Jin Kim¹
Ji Eun Oh¹, Hyung Jik Kim¹, Jung Woo Noh¹ and Dong Hyun Kim²

¹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²Social Medicine, Hallym University, Hallym Kidney Research Institute

목적 : 악성종양은 투석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일반 인구에 비해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악성종양의 발생률이 증가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저자들은 일반 인구에 비교하여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악성종양의 발생률이 증가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 1997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림대학교 3개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시행 받는 말기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악성종양의 발생률을 조사하였다. 또한 일반인구의 암발생률과 비교하기 위해 1997년 서울 cancer registry 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투석 시작 전에 악성종양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 신부전의 원인이 악성종양과 관계된 경우, 신이식을 받았던 환자 등은 제외하였다.

결과 : 대상 환자 1,010명 중에 44명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하였다. 악성종양 발생환자의 평균 연령은 58.5세 (27- 80)였고, 남자 31명, 여자였고 13명이었으며, 종양이 발견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36.5개월이었다. 연령 분포는 49세 이하 6명, 50- 59세 11명, 60- 69세 14명, 70세 이상 13명이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암발생률 (연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을 조사하였을 때, 남자 투석환자에서는 49세 이하 1256명, 50- 59세 2201명, 60- 69세 3401명, 70세 이상 5426명이었으며 남자 일반인에서는 49세 이하 80명, 50- 59세 572명, 60- 69세 1390명, 70세 이상 2465명이었다. 그리고 여자 투석환자에서는 49세 이하 248명, 50- 59세 727명, 60- 69세 1653명, 70세 이상 5882명이었으며 여자 일반인에서는 49세 이하 112명, 50- 59세 390명, 60- 69세 698명, 70세 이상 1020명이었다. 투석환자에서 악성종양의 발생률은 전연령에서 일반 인구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남자와 60세 미만의 환자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또한 투석환자에서 위암 (15예)과 간암 (12예) 등은 일반 인구에 비해 발생률이 높았다.

결론 : 투석환자에서 악성종양의 발생률은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석환자 중에서 특히 남자와 60세 미만에서 암발생률이 높았다.

Key Words : 투석, 악성종양, 발생률

Dialysis, Malignancy, Incidence